

KWDI

해외통신

2020년 5월 2차 (2020.5.16 ~ 5.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독일, 코로나 위기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감소, 돌봄 부담은 증가

채혜원 독일통신원

- 코로나 위기가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강제로 줄이게 하고, 집안일과 무급 돌봄 영역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남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성은 무급 가사노동을 하는 과거 노동 분업 구조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 독일의 '한스 뵘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이 칸타 도이칠란트(Kantar Deutschland)에 의뢰해 총 7,677명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위기로 여성의 노동 시간은 줄어든 반면 집안일과 무급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WZB)의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의 16%가 코로나 19 이후 일을 덜 하게 됐으며, 이는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19 이후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해 모든 보육센터와 유치원, 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부모, 특히 여성이 주요 부담을 지게 됐다. '한스 뵘클러 재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 있는 가정에서 자녀 보육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줄인 여성 비율은 27%에 달했다. 이에 비해 근무시간을 줄인 남성 비율은 16%였다. 저소득 가정일 경우 근무시간을 줄인 남녀 비율 격차는 더욱 컸다.
- 또한 봉쇄조치로 인해 여성이 근무시간을 줄여 돌봄 손실을 메운 비율은 가구당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0유로(한화 약 273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여성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집안일 및 무급 돌봄 업무를 한 비율은 31%(남성 19%)였다. 월 소득이 2,000유로부터 3,200유로(한화 약 273만~436만 원) 사이 가구의 경우, 여성이 근무시간을 줄인 비율은 32% (남성 18%)로 2,000유로 이하인 가구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월 소득이 3,200유로(한화 약 436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여성이 근무시간을 비율이 24%(남성 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고자료

- Hans-Böckler-Stiftung(2020.05), "RÜCKSCHRITT DURCH CORONA", <https://www.boeckler.de/de/boeckler-impuls-ruckschritt-durch-corona-23586.htm> (접속일: 2020.05.28.)
- WirtschaftsWoche(2020.05.05.), "Zerstört Corona Frauen-Karrieren?", <https://www.wiwo.de/erfolg/beruf/zurueck-an-den-herd-zerstoert-corona-frauen-karrieren/25802466.html> (접속일: 2020.05.26.)

- 독일 경제주간지 ‘비어트샤프트보허(WirtschaftsWoche)’ 보도에 따르면, 사회학자 유타 알멘딩거(Jutta Allmendinger)는 코로나 19로 인해 여성 역할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의 여성 고용률은 72%이지만 30년 전인 60% 미만대로 감소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1991년 독일의 여성 고용률은 57%였고, 이전에는 55% 정도에 그쳤다.
- 유타 알멘딩거는 “1990년대 초에는 3세 이하 어린이나 방과 후 아이를 돌보는 종일학교 등이 없어 여성이 경제활동보다 무급 돌봄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며 “하지만 현재 봉쇄조치로 인해 많은 유치원, 학교 등이 문을 닫으면서 과거처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가 늘었고 이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해 독일 서부에 위치한 파더보른 대학교(Universität Paderborn)의 베티나 콜라우쉬 교수는 “최근 예산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파트너와 맞벌이 하는 여성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더 많은 돌봄 일을 수행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집안일과 돌봄 일에 대한 여성 의존도가 높아져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말했다.
-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코로나 위기 이후 증가한 돌봄 노동 일이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 중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집안일과 돌봄 일을 비슷한 비율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한 가구당 수입이 2,000유로(한화 약 273만) 미만인 부부나 파트너십의 경우 52%가 코로나 위기 이후 여성의 집안일 및 돌봄 일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됐고 이로 인해 청소, 요리, 학교 교육을 대체할만한 아이 돌봄 등의 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주로 여성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감당하고 있다. 독일 언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현재 가정마다 위기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 위기로 인해 남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독일 GERMANY



독일, 온라인 기반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경찰의 잠입수사 허용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에서는 2019년 10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도시 베르기슈글라트바흐(Bergisch Gladbach)에서 한국의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약 1,800명의 회원을 가진 아동 성착취물 관련 휴대폰 채팅 그룹이 발견된 것이다. 독일연방범죄수사청(BKA)에 따르면 1,800명의 가해자들은 그룹채팅창을 통해 아동 성착취 관련 정보와 사진 등을 교환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1만 장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었으며, 가해자 중에서는 자녀 또는 의붓자식을 성적으로 학대, 폭행해 사진과 영상을 찍은 이들도 있었다.

참고자료

- Bundeskriminalamt(2020), “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https://www.bka.de/DE/UnsereAufgaben/Aufgabenbereiche/Zentralstellen/Kinderpornografie/kinderpornografie_node.html (접속일: 2020.5.14.)

- 📌 끔찍한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가 발견된 이후, 독일에서는 전국구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56명의 피의자를 조사 중이며 이중 절반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나머지는 다른 주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포된 가해자는 10명이다. 현재까지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와 관련해 성학대와 성폭력을 당한 아동 피해자는 21명으로 나타났으며, 압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쾰른경찰청은 약 300명이 연계되어 있는 ‘특별조직’을 구성했으며, 최대 161명의 경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경찰청(LKA)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컴퓨터로 생성한 가짜 아동 이미지 사용을 통해 직접 여러 채팅창에 들어가 더 많은 사례와 가해자를 찾는 방법을 제안했고, 이에 연방 법무부는 조건 수락했다. 독일 <Aachener> 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조사관이 컴퓨터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 수사 방법은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그루밍(Cyber-Grooming) 관련 법안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채팅앱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이용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범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사진,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친밀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한다.
- 📌 현재 독일에서는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물 배포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연방 및 주정부 보안 당국에 따르면 아동 성 학대 관련 범죄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범죄수사청(BKA) 자료를 보면 실제 아동 성착취물 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 수가 증가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졌고 최근 몇 년간 인터넷에서 성폭력 묘사나 이미지에 대한 경고 조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 또한 언론매체 ‘베를린모어겐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성착취물 배포에 관한 범죄가 52%, 아동 성착취물 배포도 65% 증가했다. 이처럼 성착취물 배포 범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배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 📌 이에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퇴치 중앙 센터(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를 마련했다. 범죄수사청 자료를 보면, 인터넷상의 아동 성착취물은 국제 차원의 범죄이며 데이터를 몇 초 만에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은 독일과 전 세계 수사기관에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퇴치 중앙센터는 국내 및 해외 기소 당국과 관련 기관 및 조정 사무소 사이의 연계기능을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센터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및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의 중앙본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 Berliner Morgenpost(2020.03.23.), “BKA: Verbreitung von Kinderpornos nimmt laut BKA dramatisch zu”, <https://www.morgenpost.de/vermischtes/article228756051/Kinderpornografie-BKA-verzeichnete-2019-deutlich-mehr-Faelle.html> (접속일: 2020.5.12.)
- ZEIT ONLINE(2014.11.14.), “Bundestag verabschiedet Gesetz gegen Kinderpornografie”,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4-11/kinderpornografie-missbrauch-gesetz-edathy> (접속일: 2020.5.12.)
- Neue Westfälische(2020.02.05.), “Bergisch-Gladbach: Zurzeit 56 Beschuldigte und 21 missbrauchte Kinder”, https://www.nw.de/nachrichten/zwischen_weser_und_rhein/22687315_Bergisch-Gladbach-Zurzeit-56-Beschuldigte-und-21-missbrauchte-Kinder.html (접속일: 2020.5.14.)
- Aachener zeitung(2019.11.25.), “Missbrauchsfall Bergisch Gladbach wohl größer als Lügde”, https://www.aachener-zeitung.de/nrw-region/missbrauchsfall-bergisch-gladbach-wohl-groesser-als-luegde_aid-47401905 (접속일: 2020.5.14.)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안이 개정돼 아동의 알몸을 찍거나 사진을 판매·교환하는 경우 처벌받게 됐다. 당시 법안 수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불법 촬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범위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독일 형법 184조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 또는 소지하고 있을 경우, 3개월에서 5년 형의 징역에 처한다.

스페인 SPAIN



스페인, 코로나 위기로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핫라인 문의전화 작년 대비 약 47% 증가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스페인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8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17건이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 살해당한 여성이라고 한다. 즉, 5건 중 1건의 살인사건이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인 것이다.
- 작년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총 76건 중 14건이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었는데, 수치상으로는 약 2% 남짓의 낮은 증가율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스페인 정부의 정책 추진이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살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가 스페인을 강타하면서 스페인은 올해 상반기, 전역에 강력한 이동제한령(lockdown)을 실시해왔다. 이동제한령이 실시된 이후인 올해 4월의 경우,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고, 5월의 경우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5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바르셀로나에 살던 40대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이 지나 경찰은 집 근처 개울가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이어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바로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로, 용의자는 바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미 성추행 및 여성대상 폭력 전과가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었다.

참고자료

- Euro Weekly(2020.05.17.), "One in every five murders in Spain this year were women killed by their partner or ex", <https://www.euroweeklynews.com/2020/05/17/one-in-five-murders-in-spain-this-year-were-women-killed-by-partner-or-ex/> (접속일: 2020.05.22.)
- Olive Press(2020.05.01.), "Man arrested in Spain's Catalunya on suspicion of murdering his girlfriend and dumping her body in a stream", <https://www.theolivepress.es/spain-news/2020/05/01/man-arrested-in-spains-catalunya-on-suspicion-of-murdering-his-girlfriend-and-dumping-her-body-in-a-stream/> (접속일: 2020.05.22.)

그러나 위와 같은 동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젠더폭력 철폐를 위한 정부 대표(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를 역임한 바 있는 미겔 로렌테(Miguel Lorente)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제한령이 끝나면 심각한 폭행 및 살해 접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성들이 지금은 피해를 입더라도 이동제한령 때문에 그 폭력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여건이 가능해지면 피해 신고 접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동제한령 기간에는 가해자 본인이 여성 파트너를 통제(control)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큰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위험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The Guardian(2020.04.28.),
“Women killed in Spain as coronavirus lockdown sees rise in domestic violence”,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28/three-women-killed-in-spain-as-coronavirus-lockdown-sees-rise-in-domestic-violence>
(접속일: 2020.05.22.)

과거 실제 여성대상 폭력 피해자이기도 했고 지금은 여성대상 폭력 철폐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Fundación Ana Bella를 운영하는 아나 벨라(Ana Bella)는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도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령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대면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4월에는 통계상 접수된 여성 살해 사건이 0건으로 나타났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핫라인에 걸려온 문의전화는 작년 대비 4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공식 지정한 온라인 지원 서비스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로 연락한 여성은 무려 7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폭력 및 살해 위협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상당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스페인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여성 대상 폭력 및 살해 방지,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CANADA



캐나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여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 투입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 통계청이 2020년 5월 9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년 3월 캐나다의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에만 1,01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실업률이 전년 대비 2.2%p 증가한 7.8%로, 4월에는 13%로 치솟았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실업률 증가세는 캐나다 통계청이 고용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사상 최악의 기록인데, 캐나다 언론은 이 수치조차도 실질적인 캐나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코로나 사태 이후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인구 약 170만 비경제 활동 인구까지 고려하면 캐나다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현재 20%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참고자료

- HuffPost(2020.05.09.),
Canada's Unemployment Crisis Hits Gen Z, Women, Quebecers Hardest”,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unemployment-canada-youth-women-quebec_ca_5eb6ed97c5b64711c0c8d3ff
(접속일: 2020.05.18.)

더욱이 이러한 경제위기는 특정 사회계층,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언론은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여성에 더욱 가혹한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여성(she)과 불황(recession)을 합성한 단어인 쉬세션(She-c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허핑턴 포스트 캐나다의 2020년 5월 9일 보도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마지막 불황인 2008년~2009년 불황이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 제조업 등의 직종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몰고 왔기에 이를 히세션(He-cession)이라 불렀던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번 불황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3월 한 달간 25세 남녀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15,000명의 25세 이상 남성이 3월 한달 간 새롭게 실업자가 된 반면 여성 실업자는 403,000명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 Government Canada (2020.05.16),
 "Minister Ng announce more support for women entrepreneurs amid COVID-19",
<https://www.canada.ca/en/innovation-science-economic-development/news/2020/05/minister-ng-announces-more-support-for-women-entrepreneurs-amid-covid-19.html>
 (접속일: 2020.05.18).

캐나다 언론과 학계,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캐나다의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고 있다. 식당, 호텔, 미용업 등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3월 비상사태 선포로 이러한 직종들이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다수의 여성들이 동시에 실업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2020년 4월 말 경기 동향에서는 이러한 남녀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으로도 설명이 된다. 4월 말 동향에서는 여성의 전체 실업률이 11.3%, 남성의 실업률은 10.8%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는 3월에 해고된 여성들이 복직을 해서가 아니라 캐나다의 코로나 사태가 4월 내내 악화됨에 따라 문을 닫은 직종들이 더욱 늘어났고 건설업과 같이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까지 여파를 미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요컨대 이는 여성 해고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저임금 노동자인 상태에서 비상사태 선포 후 제일 먼저 해고가 된 이후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5월 16일 일하는 여성들을 특별히 염두 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캐나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의 여성상공인 전략(WES: 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 프로그램을 통해 1천 5백만 캐나다 달러(약 13억 2천만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책이다. 이 지원대책의 대상자들은 여성 소상공인들로서, 1천 5백만 달러의 지원금 중 75%는 여성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조에 쓰일 것이며 나머지 지원금은 여성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홍보비, 임대비 보류, 온라인 플랫폼 개척을 위한 교육 훈련비 등에 지출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16일 이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성 사업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소매업, 숙박, 요식업 등의 섹터"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이러한 소규모 직종들이 자금난에 취약하다는 점, 여성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 동안 경제적 위기에 더불어 육아나 집안일 등의 돌봄 의무를 더 짊어져야 했을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받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캐나다 지역 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2018년 기준 38%의 자영업자가 여성으로, 2018년 캐나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런칭한 WES 프로그램은 기업가와 고객들이 모두 여성인 업종들을 주로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청은 이 프로그램이 성별 임금 격차 해결, 가용한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 젠더폭력 근절을 주축으로 한 연방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영국, 코로나로 치료 중단된 불임환자 위해 난자 냉동기간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 영국 정부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현행 최대 10년인 난자와 정자, 배아 냉동 보관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난자와 정자 등을 얼렸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치료가 일시 중단된 불임 치료(fertility treatment)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다.
- ▶ 현재 관련 법은 냉동 난자와 정자, 배아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냉동 난자 보관 기간이 최대 12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영국 정부는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을 시행했고, 영국 공공의료기관인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비롯해 전국의 불임 치료 클리닉은 병원 내 감염 우려 때문에 3월 23일부터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이 때문에 불임 치료 환자들은 약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
- ▶ 로드 베델 영국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4월 27일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불임 치료 중인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치료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임 치료 과정에 난자와 정자, 배아 냉동 보관이 포함된 환자들을 위해 냉동 보관 기간을 추가 2년 더 연장해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최근 영국 정부가 봉쇄조치를 완화하면서 전국 공립 및 사설 불임 치료 클리닉이 2020년 5월 11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영국의 불임 치료 클리닉 규제 기관이자 배아 연구기관인 인간생식배아관리국(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은 5월 1일,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불임 치료 클리닉이 다시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HFEA는 재운영 조건으로 대기실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운영, 필수 개인 보호장비 구비 등을 제시했다. 불임 치료 클리닉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 설명하는 계획서를 HFEA에 제출한 뒤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클리닉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 ▶ 하지만 NHS 내 불임 치료 클리닉은 사설 병원들보다 재운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불임 치료 클리닉 내 의료 인력을 포함해 많은 NHS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최전방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NHS 의료진들조차 마스크와 가운 등 개인 보호장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NHS 내 불임 치료 클리닉이 HFEA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 코로나19 상황과 별도로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최대 10년인 난자와 정자, 배아 냉동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학 기술 발전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냉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성이 임신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2020년 5월 5일 마감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법안 개정에 반영된다.

참고자료

- GOV.UK(2020.4.27), “Storage limit for frozen eggs, sperm and embryos extended during coronavirus outbreak”,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orage-limit-for-frozen-eggs-sperm-and-embryos-extended-during-coronavirus-outbreak> (접속일: 2020.5.13.)
- GOV.UK(2020.5.1), “Health secretary welcomes reopening of fertility servic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alth-secretary-welcomes-reopening-of-fertility-services> (접속일: 2020.5.13.)
- The Guardian(2020.5.10.), “Coronavirus doctors call for inquiry into PPE shortages for NHS staff”,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y/10/coronavirus-doctors-call-for-inquiry-into-ppe-shortages-for-nhs-staff> (접속일: 2020.5.13.)



영국 여성단체들, 코로나19로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 겪는 여성의 특수성 반영한 정책적 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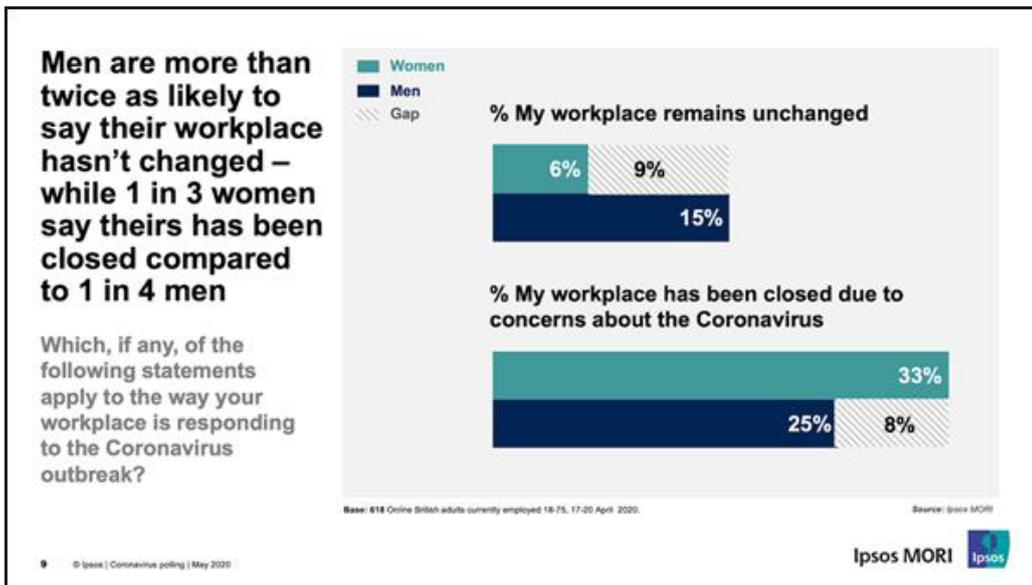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정서적 고통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영국에서 발표됐다.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실직 우려가 정서적 불안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영국 여성단체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와 시장조사 업체인 입소스 모리(Ipsos Mori)가 5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여론조사(Public opinion on the COVID-19)'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응답자 10명 중 6명(61%)이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했다. 전체 남성 응답자 10명 중 4.7명(47%)이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셈이다. 해당 자료는 입소스 모리가 영국 16~7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타격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문에 내 일자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 여성 응답자 중 6%, 남성은 15%로, 불안정한 고용에 노출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장이 폐쇄됐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33%였지만, 남성은 전체의 25%에 불과해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을 걱정하는 감정 노동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전체 여성 응답자 중 44%가 '주변에 외로운 이웃이나 취약계층에게 연락했다'고 했으며, 남성은 전체의 3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친구나 가족들이 괜찮은지 확인한다'고 답한 여성과 남성 응답자는 각각 78%와 63%로 여성이 더 많았다. 자가격리된 주변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한 여성 응답자는 21%, 남성 응답자 16%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주변인을 돕는 것으로 조사됐다.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영국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68%, 남성은 64%로 나타났다.
- 포셋 소사이어티 샘 스메더스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할 때 영국 정부는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성을 뒷전에 밀쳐둔다면 영국의 경제 회복은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영국 여성 단체와 여성 운동 활동가들은 많은 여성이 슈퍼마켓 직원이나 유아 보육, 노인 병간호 등 저임금을 받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참고자료

- Fawcett society (2020. 5. 20.) "Women are bearing the emotional brunt of the coronavirus crisis",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women-are-bearing-the-emotional-brunt-of-the-coronavirus-crisis> (접속일: 2020.5.27.)
- Ipsos Mori (2020.5.26.) "Coronavirus, Tracking UK public perception",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2020-04/coronavirus-covid-19-infographic-ipsos-mori.pdf> (접속일: 2020.5.27.)
- Fawcett society (2020. 3.1) "Coronavirus: Joint call for women's visibility in UK response",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coronavirus-joint-call-womens-visibility-uk-response> (접속일: 2020.5.27.)

📌 지난 3월 포셋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영국 여성단체 50곳은 공동 성명서를 내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직면한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Fawcett society (2020. 5. 20.) “Women are bearing the emotional brunt of the coronavirus crisis”,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women-are-bearing-the-emotional-brunt-of-the-coronavirus-crisis> (접속일: 2020.5.27.)